



# 고품질 제품 저가에 공급

임가공 전문업체로 발돋움

현재 의약분업이 진행됨과 함께 책임소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의약품의 '바코드표시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 포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지고, 의약품포장의 변화와 시장의 성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포장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이에 맞는 의약품 포장을 개선하려는 제약회사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회사설립과 성장

이미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제약회사가 있다.

1926년 유일한 박사에 의해 창설된 (주)유한양행은 일찍이 원료의약품의 국내 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결핵치료제인 파스, 에탐부톨 및 진통소염제인 메페남산 등을 합성하기 시작하여 원료의약품의 국산화는 물론 해외수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1970년대 새로운 발효기술을 개



▲ 유한양행 약품 포장



▲ 현경준 팀장(가운데)과 유한양행 품질 관리팀 팀원들

발하고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을 생산, 전세계 시장에 수출해 왔으며, 80년대에는 국내 최초로 인도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리팜피신 발효기술을 이전하여 제약업 해외진출의 문을 열었다.

이어 90년대에 들어서는 세파클러, 세프라딘 등 세파로스포린계 원료를 합성, 수출하여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에이즈 치료원료를 개발, 많은 양을 미국에 수출하여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시화공단에 미국 FDA기준에 적합한 대단위 합성시설을 갖추으로써 세계적인 원료의약품 메이커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가고 있다.

유한양행은 “기업의 생명은 신용이다” 유일한 박사 어록중의 한 구절로써 사람의 생명을 다루

는 의약분야에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다.

유한인들은 이에 따라 제조과정 전반에 과학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정성을 다하고, 한알의 약, 한 앰플의 주사에도 신용과 약효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한의 “함께 이룬 기업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창업정신에 따라 일찍이 사원지주제를 도입했음은 물론 사우공제회를 결성하여 대여금제도, 주택건립사업, 구판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자녀장학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사원들의 한가족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원복지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유한양행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구현하고, 산악협동으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1978



년 유한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전문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어 이에 유한인들은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최근 유한양행은 제약업계 최초로 6SIGMA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고, 자체 개발한 위궤양 치료신약 'YH1885'를 영국 제약사인 스미스클라인 비참사에게 1억달러에 기술 이전하였으며 기술수출료 외 전체 매출이 10%가량 로 알티로 받기로 한 바 있다.

### 품질관리팀

의약품은 보증기간이 평균 2년 이상으로 식품 등에 비해 장기간 보증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기간동안 각종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장애에 견디어 품질의 안전을 유지해야 함으로 제제기술만으로 불충분한 것을 포장기술로서 보충해야 한다.

이에 유한양행에서는 품질관리팀을 운영하여 의약품의 약효저하나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품에 대한 시험은 의약품 포장에 대해서도 관리, 연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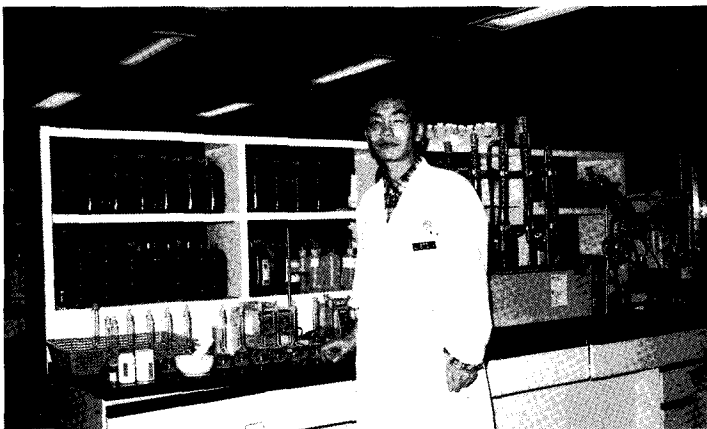
품질관리팀은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 즉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품질관리팀의 인원은 총 36명으로 22명의 품질관리사와 14명의 실험연구원으로 나누어져 의약품에 대한 실험과 포장연구, 포장재료 실험, 포장규격 설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년동안 한 제약회사에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품질관리팀의 행정준 팀장은 “품질관리팀은 직원들이 각자 자신들이 하는 일이 회사로 볼 때 하나의 일부지만 이로인해 ‘나는 물론 유한을, 더 나아가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끼리 서로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항상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유한양행 품질관리팀에서는 고흥제 병포장의



◀유한양행 실험실



▶ 유한양행 품질 관리실

다양한 재질과 규격을 통일하고자 3년여의 연구 끝에 L 시리즈 용기를 만들어 플라스틱 용기 포장의 공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L 시리즈 대표제품은 L-2에 그랑페를 연결캡셀, L-3에 뼈콤포씨, L-4에 큐자임정 등이 있다.

그동안 제품별로 약 40여종이 넘는 포장 용기를 사용해 오던 유한양행에서는 L 시리즈 용기의 등장으로 포장 공용화는 물론 제품 안정성 보증, 재료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물류합리화 및 원가 절감, 공장 자동화 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L 시리즈 용기는 고품제 병포장 제품의 규격을 단 3가지 형태의 용기로 구분, 지함과 라벨의 생상과 문안만의 변경으로 통일된 제품군을 형성함으로써 기업 CI확립은 물론 1995년 이후 매년 3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L-2, L-3, L-4 용기로 구분되어진 L 시리즈 용기는 의약품업에 발맞춰 L-1, L-5 용기를 신규 개발 중에 있으며 모두 자동 포장라인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PTP 포장의 공용화에 성공, 초고속 블리스터 포장기를 도입하여 2004년 예정의 공장이전에 대비한 물류 및 포장 자동화에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유한양행은 앞으로는 신사업구조, 신기술 개발능력, 신자산구조, 신관리체계, 신의식구조 등의 확립이란 5대 신경영전략의 추진으로 신약 개발은 물론 의약품 포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약품 포장에 있어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o]

권해진 기자